



나라사랑 평화나눔 DMZ 국토대장정

젊음의 열정으로 조국의 허리를 달린다

전국 대학생 강원 고성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횡단

젊은 대학생에게 분단현실을 체험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9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DMZ 국토대장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자총은 8월 14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의 종각 앞에서 박종환 총재를 비롯한 본부 임직원과 윤흥식 총단장(경기도지부 청년협의회장) 및 대학생 1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대장정 완주 및 해단

식을 갖고 8박 9일간의 대장정을 끝냈다.

DMZ 대장정단은 이에 앞서 8월 6일 서울 자유센터 대강당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강원 고성군 고성읍으로 이동, 고성실내체육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고성통일전망대 - 백골병단전적비 - DMZ 평화생명동산 - 양구안보전시관 - 피의능선전적비 - 21사단 신병교육대 - 평화의 댐 - 백마고지전적비 -

노동당사 - 임진각 등 DMZ 남방 총 250km를 도보로 횡단하며 안보의식을 다졌다.

이번 DMZ 대장정단은 단순 행군 위주의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치러졌던 격전지를 도보로 횡단하며 안보현장 견학, 전방부대 방문 및 숙박, GOP 철책선과 민통선 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주요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관련 화보 12면>



◇박종환 총재와 DMZ 국토대장정 참가자들이 8월 14일 임진각 완주식에서 모자를 던지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전국 고교생 토론회 수상자와 심사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5회 전국 고교생 토론회

인천 송도고 정혁·방우식 학생 국회의장상

자총은 8월 9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전국 시·도 대표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5회 전국 고교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선 '블라인드 면접은 확대해야 한다'를 주제로 각 지역대표들의 열띤 찬반논쟁 끝에 인천 대표 송도고 2학년 정혁·방우식 학생 팀이 대상(국회의장상)을 받았다. 박종환 총재는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과연 무엇이고,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그 외 입상팀 명단. ▲금상(행정안전부 장관상) - 김은지·황세정(충북 한국교원대부설고 2년) ▲은상(총재상·

이하 같음) - 김윤서·엄유선(인천 하늘고 1·2년), 박민지·김해강(세종 중촌고 2년) ▲동상 - 김가연·양유정(동두천외고 2년), 신상현·류호군(경남외고 2년), 오제현·이승현(제주 남주고 2년), 김민정·김재빈(울산 현대청운고 1년) ▲장려상 - 박나형·전현섭(충남 연무고 2년), 이현지·장혜윤(강원 상지여고 2년), 박종윤·황성우(대구 신명고 1년), 서유지·최윤서(대전외고 2년·충남여고 2년), 정지은·최유미(경북 성주여고 2년), 김소연·김희원(서울 하나고 1년), 임수민·정건영(충북 청원고 2년), 이지연·김가현(부산외고 2년) ▲베스트스피커상 - 정혁(인천 송도고 2년) ▲지도교사상 - 송윤근(인천 송도고).

성명서

한국자유총연맹, 교육부의 새 역사교과서 개정 고시 미흡하지만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27일, 교육부가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서 '민주주의' 표현과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확정된 것은 다소 미흡하지만 매우 뜻깊은 결정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환영 입장을 밝힙니다.

● 자총은 지난 5월 4일과 6월 22일,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자유'를 삭제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에 현저히 위배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 행정 예고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두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자총은 7월 12일 교육부를 방문,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어 "현행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되어 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자총 핵심 활동가 10만 명의 서명을 담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 또한, 자총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기에 '자유'를 삭제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존치를 요구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자총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는 등 우리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수용되지 않아 다소 미흡하지만, 당초의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던 '자유' 표현의 존치를 결정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교육부의 확정 고시를 환영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

350만 회원 일동